



3. (가)는 윤 교사가 만든 학습지의 일부이고, (나)는 학습지를 화제로 동료 교사와 나눈 대화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 활동 목표: 쓰기 과제에 따라 설명하는 글을 쓴다.
- 활동 1: 다음 쓰기 과제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보자.
  - 돈 들이지 않고 재미있게 노는 방법
  - 알아 두면 좋을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
- 활동 2: 선택한 쓰기 과제의 쓰기 상황을 분석해 보자.

쓰기 상황	• 글의 주제	
	• 글의 목적	
	• 글의 유형	
	• 필자의 입장	
	• 매체의 유형	

- 활동 3: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내용을 마련해 보자.
  - (1) 조사가 필요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자.
  - (2)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여 내용을 다양하게 마련해 보자.
- 활동 4: ... (하략) ...

(나)

윤 교사: 장 선생님, 제가 만든 학습지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장 교사: 아침에 살펴보았는데 '활동 2'의 쓰기 상황 분석에서 ( ㉠ )이/가 누락되었더군요. 중요한 요소인데…….  
 윤 교사: 아, 그런가요?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장 교사: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강조할 내용은 무엇인지, 내용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필자 중심의 글을 쓰지 않게 하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어요.  
 윤 교사: 네, 그렇겠네요. 다른 것도 있나요?  
 장 교사: '활동 3'에서 내용 생성 방법을 자료 조사로만 한정된 것이 좀 아쉬워요. 자료 조사가 필요해도 우선은 학생의 ( ㉡ )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것은 가장 빠르면서도 효과적으로 내용에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작문의 인지 과정 모형에서도 이것을 중시하더군요.  
 윤 교사: 이론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장 교사: 그럼요. 작문의 인지 과정 모형에서는 이것을 필자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의 총체로 설명한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윤 교사: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업하기 전에 꼭 보완해 볼게요.

4. 다음은 '향찰'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한자(漢字)를 각각 쓰시오. [2점]

향찰(鄉札)은 우리말을 실제에 가깝게 온전히 적기 위해 고안된 차자표기(借字表記) 방식이다. 주로 향가를 적는 데 사용되었으며 다른 차자표기와 같이 한자의 음이나 훈을 빌려 표기하였다. 표기의 주요 방식은 명사나 용언의 어간과 같은 어휘 형태소 부분은 주로 훈독(訓讀) 표기로, 어미나 조사, 접사와 같은 문법 형태소 부분은 주로 음독(音讀) 표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예외도 있다.

「처용가」의 첫 부분을 “東京明期月良[東京 불기 드라라]/夜入伊遊行如可[밤 드리 노니다가]”처럼 해독한다고 할 때, 밑줄 친 구절에서 문법 형태소 부분을 표기한 글자 가운데 음독 표기에 해당하는 한자(漢字)는 ( ㉠ ), ( ㉡ )이다.

5. 다음을 보고 교사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아빠: 여보, 거기 있는 책을 나에게 좀 주오. …………… ㉠  
 엄마: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아빠: 철수야, 이 책을 가져다 아래층에 사는 영수에게 주어라. …………… ㉡  
 철수: 네, 알겠어요.  
 아빠: 아! 그리고 영수가 빌려 갔던 책을 주면 받아서 나에게 다오. …………… ㉢  
 엄마: 아까 영수가 그 책을 가져와 나에게 주었어요.  
 철수: 그럼 저는 이 책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지요?  
 빨리 갔다 올게요.  
 아빠: 고맙다. 여보, 오늘 철수에게 용돈 좀 주오. …………… ㉣

—<보 기>—

교사: 오늘은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보며 '아빠'의 말 중에서 밑줄 친 부분에 주목하여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학생: '아빠'의 말에서 대부분 '주다'가 서술어인데, 특이하게 ㉢에서는 '다오'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교사: 맞아요. 내가 타인에게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에는 '주다'가 아닌 '다오'가 쓰입니다.  
 학생: 아! 그래서 ㉡와 ㉣에서는 '다오'가 쓰이지 않고 '주다'가 쓰였군요.  
 교사: 네. 좋은 지적이에요.  
 학생: 그럼 ㉢에서와 달리 ㉠에 '주다'가 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사: 좋은 질문이에요. 그것은 상대 높임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 혹시 ㉢에 '다오'가 쓰인 것은 그것이 ( ㉠ )체의 문장이기 때문인가요?  
 교사: 그래요. 주의할 것은 ㉡와 ㉢은 모두 같은 등급의 상대 높임이지만, ㉢의 '다오'에는 ( ㉡ )형 종결 어미가 ㉡의 '-어라'와 다르게 '-오'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6. 다음을 읽고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한 단어씩 쓰시오. [2점]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선히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설온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 「가시리」

(나)  
 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상이다  
 선왕성디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

⋮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구스리 바회예 디신들  
 긴히든 그츠리잇가

즈믄 히를 외오곰 녀신들  
 즘흔 히를 외오곰 녀신들  
 신밋든 그츠리잇가

- 「정석가」

—<보 기>—

(가)의 ‘위 증즐가 대평성디大平盛代’, (나)의 ‘선왕성디先王聖代에 노니와지이다’는 작품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관련성이 긴밀하지 않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위 노래들이 ( ㉠ )에서 유행하다가 ( ㉡ )에 수용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

7. 다음을 읽고 <보기>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되, ㉡은 다음에서 찾아 쓰시오. [2점]

노인이 이윽히 보다가 응의 손을 잡고 왈,  
 “그대 조용이 아니냐?”  
 응이 답 왈,  
 “어찌 알으시나니이꼬?”  
 노인 왈,  
 “하늘이 보검을 주시매 임자를 찾으러 두루 다니더니, 수월 전에 장성(張星)이 강호에 비치거늘, 이곳에 와 기다리되 종시 만나지 못하매 괴이히 여겨 다시 천문을 보니 장성은 떠나지 아니하나 행색이 곤핍하기로 개걸(丐乞)하는 줄 짐작 하나 어찌 늦게 오뇨?”  
 하고 칼을 주거늘,  
 응이 재배 왈,  
 “이런 보배를 주시되 값이 없으니 어찌하리이꼬?”  
 노인이 소 왈,  
 “어찌 값을 의논하리오?”  
 하고 당부 왈,  
 “그대는 진심갈력하여 광산 도사를 찾아 술법을 배우라.”  
 하고 가거늘, 응이 배별(拜別)하고 여러 날 만에 광산에 들어가 도사를 찾아 배례한대, 도사가 왈,  
 “그대 이 험로에 나를 찾으니 그 정성은 알거니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느냐?”  
 응이 재배 왈,  
 “배운 바가 없삽기로 의사(意思)를 열고자 하나니이다.”  
 도사 웃고 왈,  
 “그대는 장부라 어찌 모르리오?”  
 하고 천문지리와 육도삼략을 가르치더라.  
 수년 내에 재주가 능통한지라. 일일은 벽력같은 소리가 들리거늘, 응이 놀라 문 왈,  
 “이 무슨 소리니이니까?”  
 도사가 왈,  
 “수년 전에 망아지 하나를 얻으니 심히 사나워 근심하노라.”  
 응이 곧 가 보니 과연 말이 모색(毛色)이 가을 물결 같은지라. 고삐를 이끄니 그 말이 오래 보다가 고개를 숙이거늘, 응이 반겨 말 값을 묻거늘, 도사가 왈,  
 “하늘이 용총(龍鬃)을 내시매 자연 임자를 주나니 어찌 값을 말하리오?”  
 응이 사례하고 다시 고 왈,  
 “소자 모친 슬하를 떠난 지 벌써 수년이라 다녀움이 어떠하니 이꼬?”

- 「조웅전」

—<보 기>—

고전 소설의 중요한 특질인 환상성은 태몽(胎夢), 적강(謫降), 이인(異人), 인귀교환(人鬼交歡) 등의 모티프를 통해 구현된다. 윗글에서는 이인들이 연달아 등장하여 주인공의 ( ㉠ ) 역할을 한다. 이인의 출현은 지상계에서 벌어지는 일에 ( ㉡ )이/가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8. 다음은 최 교사가 준비한 수업 자료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학습 목표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활동 제재	山은 九江山 보랏빛 石山  山桃花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붉은 녹아 흐르는 옥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1』

감상 맥락	활동 자료	중심 활동
사회·문화적 맥락	일제 강점기 말기의 사회상이 생생하게 드러난 사진 자료	이 시의 시적 공간이 갖는 ( ㉠ )적(的) 성격과 당대 상황을 대비하여 창작 의도 추측하기
( ㉡ )적(的) 맥락	청록파 시인들의 시적 경향을 분석한 비평문	자신이 읽은 시 작품 중 이 시의 시적 경향과 유사한 작품을 찾아 계승 관계 파악하기
상호텍스트적 맥락	이백, 『산중문답(山中問答)』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도화'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9. <보기 1>은 구개음화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2>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

—<보기 1>—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 음운론적 층위의 구개음화는 받침 ‘ㄷ, ㅌ(ㅈ)’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반모음 [j])로 실현되는 경우 포함)와 결합되는 경우, 즉 형태소 경계의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구개음화는 ㉠ 다른 환경에서도 적용되었었는데 점차 ㉡ 그러한 다른 환경에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게 변화하였기에 현대 국어에서 ‘어디’와 같은 어형이 남아 있게 되었다.

—<보기 2>—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어에서 구개음화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출현하여 18세기 말에는 거의 완성이 되었다. 자음 아래에서 ‘-ㅣ>ㅣ’의 단모음화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나타난다.

—(가)—		—(나)—	
15세기	18세기 중반	19세기 후반	현대 국어
그티(<글+이>) 그테(<글+에>)	꺄치(<끝+이>) 꺄혜(<끝+에>)	꺄치(<끝+이>) 꺄혜(<끝+에>)	꺄이[꺄치] 꺄에[꺄혜]
디나며 먹디 어디	지나며 먹지 어디	지나며 먹지 어디	지나며 먹지 어디

—<작성 방법>—

- <보기 2>의 (가)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할 것.
- <보기 2>를 참고하여 ㉡의 현상이 일어난 과정을 설명할 것.

10. 다음 <자료>에 제시된 문장의 특징을 파악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 료>—

(1) a. 아이가 우유를 먹었다.  
 b.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2) 나는 내 결혼식에서 친구를 들러리로 세웠다.  
 (3) 친구가 아버지의 산소에 떼를 입혔다.

—<작성 방법>—

- 주동문 (1a)의 서술어에 접미사가 결합함으로써 나타난 사동문 (1b)의 문장 구조의 변화를 문장 성분에 주목하여 서술할 것.
- (2)와 (3)에서 주동문을 설정할 수 있는지 각각 밝히고, 설정이 가능한 경우 그 주동문이 사동문이 될 때 나타난 문장 구조의 변화를 문장 성분에 주목하여 서술할 것.

11. 다음에서 김 교사는 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학생들에게 시범 보이고 있다. 김 교사가 ㉠~㉢을 통해 지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김 교사: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읽기란 글과 독자의 만남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능숙하게 읽기 위해서는 읽기 전략을 활용하고 자신의 읽기 과정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밑줄 그은 부분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시범 보일 테니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는 우주 개발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가난과 질병, 전쟁과 환경 파괴에 시달리고 있다. 인류가 매년 수백 억 달러의 비용을 우주에 쏟아 부을 가치가 있는지 논란이 된다. 이에 대해 우주 개발의 정당성을 외치는 몇 가지 주장들이 있다. (㉠ '이에 대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 그런 주장이 하나씩 차례 차례 나오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 보통 그렇게 나오던걸.)

첫째, '우리의 관심을 지구에 한정한다는 것은 인류의 숭고한 정신을 가두는 것'이라는 호킹의 주장이다. (㉡ 아, 그 유명한 천체물리학자! 요즘 이 사람 영화가 나왔던데 보러 갈까? 시험도 끝났는데... 아,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 하는 거야. 글 읽다 말고. 다시 읽자. 음...) 지동설, 진화론,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같은 과학적 성과들은 인류의 문명 뿐만 아니라 정신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였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구 밖에도 생명체는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우주 개발의 노력에 따르는 부수적인 기술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계에 이전된 새로운 기술이 1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인공 심장, 바이오 리액터, 신분 확인 시스템, 비행 추적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두 가지 대표적인 주장들을 살펴봤다. (㉢ '지금까지'라고 하니 이제 술술 끝날 모양이야. 이러면 보통 요약 같은 게 오던데.) 이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우주 개발은 인류에게 정신적·물질적 차원에서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래 인류는 우주의 시초를 밝히게 되었고, 우주의 꼬트머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우주 공간에 인류의 거주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우주 개발을 '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일 것이다. (㉣ 그래, 이게 현명한 거 같아. 다시 한 번 읽으면서 놓친 내용은 없는지 살펴봐야겠어.)

<작성 방법>

- ㉠, ㉢에서 김 교사가 무엇을 단서로 하여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서술할 것.
- ㉡, ㉢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읽기 전략이 무엇인지 쓰고, 이 전략의 읽기 교육적 의의를 서술할 것.

12.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두 작품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4점]

(가)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과 임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둥에 일 업슨 니 몸이 ㉠ 분별(分別)업시 늑그리라  
 - 성혼

(나)  
 서산에 돋을별\* 서고 구름은 늦이로 낸다\*  
 비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질었던고  
 두어라 차례 지은 일이니 ㉡ 매는 대로\* 매오리라  
 - 위백규  
 \* 돋을별: 해가 뜰 때에 서녘 하늘에 되비치는 햇빛.  
 \* 늦이로 낸다: 천천히 피어오른다.  
 \* 매는 대로: 김매는 대로.

<작성 방법>

- (가), (나)에 표현된 공간의 성격을 각각 서술할 것.
- ㉠, ㉡에 주목하여 (가), (나)의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각각 서술할 것.

13. 서 교사는 “모범문의 내용 전개 과정을 모방하여 성찰하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을 읽고 이 수업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모범문 분석

모범문	내용 전개 과정
<p>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센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썩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센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p> <p>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빠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p> <p>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쯤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재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 이규보, 『이옥설(理屋說)』</p>	<p>1문단에서는 생활 체험을 끌어들이고 있음.</p> <p>2문단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성찰한 내용을 쓰고 있음.</p> <p>3문단에서는 사회적 차원을 다루어 성찰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p>

(나) 학생 글

얼마 전에 큰 마음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었다. 빨리 남들처럼 멋진 몸매를 갖고 싶어서 운동으로 차근차근 가꾸라는 충고를 무시하고 센 방법을 썼다.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배가 고파도 꺾꺾 참으며 견뎠다. 그러다 그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 버렸다.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하다.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TV에서 일본이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탔다는 뉴스를 들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빨리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려면 국가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이어트 실패 후 내 몸무게는 이전으로 돌아왔다. 아니 더 찌고 있다는 게 진실이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괜히 짜증만 내고, 나 자신에게도 자꾸자꾸 화가 난다. 내 마음은 짜증, 실망, 불만뿐이다.

<작성 방법>

- 이 수업의 바탕이 된 작문 이론을 쓸 것.
-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구성과 내용(성찰)의 측면에서 1가지씩 제시하고, 그 개선 방안을 각각 서술할 것.

14. 다음을 읽고 작품의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

(가)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 준 ㉠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오. 와 처음부터 없기사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는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先祖)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東拓)\*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 보호 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더만!”

윤춘삼 씨의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 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탁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日人)의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서도 떠올랐다.

“척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능 기요?”

그의 껍겨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랏배 통학생입더.”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동척: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줄임말.

\* 역둔토: 조선 시대 역(驛)과 각 관청에 지급된 토지.

\* 불하: 국가나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나)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 무늬가 잦아 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재를 감싸며 돌아가는 ㉡ **갈머리[冠村]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 모습으로 남아난 것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었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외양간만 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꼴불견으로 뻗질러 서 있던 것이다.

그 왕소나무 잎새에 누렁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가 끼는 걸 보며 고향을 뜨고 13년 만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언제 베어다 쪼 썼는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에서 부레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4백여 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다 부대껴 내고도 어느 솔보다 푸르던, 십장생(十長生)의 으뜸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 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일곱 살 나 천자문을 떼고 책씻이도 마친 어느 여름날 해설핀 석양으로 잊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갯가 제방둑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 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댕기물떼새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석양놀에 가득 떠 있던 눈부신 바다를 구경했던 것이다. 방파제 곁으로 장항선 철로가 끝 간 데 없고, 철로와 나란히 자갈마다 뽀얀 신작로는 모퉁이를 돌았는데, 그 왕소나무는 철로와 신작로가 가장 가까이로 다가선, 잡목 한 그루 없이 잔디만 펼쳐진 평퍼짐한 버덩 위에서 4백여 년이나 버티어 왔던 것이다.

그날 할아버지는 장정 두 팔로 꼭 네 아들이라던 왕소나무 밑동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면서,

“이애야, 이 왕솔은 토정(土亭: 李之菡) 할아버지께서 깊고 가시던 지팽이를 꽂아 놓셨는데 이냥 자란 게란다. 그쪽에 그 할아버지 말쑤은, 요 지팽이 앞으루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한산 이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구 허셨다는 게여……. 그 말쑤을 새겨들어 진작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로قم 모진 시상은 안 만났을지두 모르는 것을…….”

하던 말을 나는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 (중략) …

그 왕소나무는 군 내에선 겨울 데가 없던 백수(百樹)의 우두머리였고, 그 나무는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나는 우리 가문의 선조 한 분이 그토록 우려하고 경계했다던, 그러나 이미 40여 년 전부터 장항선 철로를 훔아 온 철마를 탄 몸으로 창가에 서서, 지호지간의 그 유적지를 비껴가고 있었던 것이다.

— 이문구, 『일락서산』

— <작성 방법> —

- (가)의 ‘건우 할아버지’가 ㉠의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주된 정서와 그 정서가 생겨난 원인을 서술할 것.
- (나)의 ‘나’가 ㉡의 현재 상황에 대해 느끼는 주된 정서와 그 정서가 생겨난 원인을 서술할 것.
- (가), (나)에서 이들의 정서를 나타낸 단어를 하나씩 활용하여 쓸 것.

<수고하셨습니다.>